

# 비대한 학사·행정조직...학생 줄어도 직원수·임금 그대로

## 1단계 자율개선대학 탈락... '위기의 조선대' 무엇이 문제인가

조선대의 위기를 초래한 근본원인은 비대한 학사·행정 조직이다.

구성원 모두 이런 문제집단에 동의하고 있지만, 자기 희생을 전제하지 않는 이기주의 등에 발목을 잡혀 개혁이 제동이 걸렸다. 결국 정부의 1단계 자율개선대학(우수대학)에서 탈락해 2단계 심사대상으로 분류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다.

◇구조조정 뼈대 개혁안=11일 조선대가 밝힌 혁신안에는 17개 단과대학 85개 학과 중의·차·약대와 특수목적의 2개 단과대학을 제외한 12개 단과대학의 구조개혁 방안이 담겨 있다.

외국어대학은 9개 학과를 2개 학부로, 미술대학은 7개 학과(부)를 3개 학부로, 공과대학은 16개 학과(부)를 11개 학과(부), 체육대학은 4개 학과를 2개 학과(부)로 개편할 계획이다. 자연대, 보건대, IT융합대, 사회과학대, 인문대, 법과대, 경상대도 구조조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개혁안에 인력 구조조정은 빠져 있어 개혁안이 학과 재편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정 건전성에 필수적인 인건비 절감 방안이 빠져 이번 혁신안이 대학 경쟁력 강화에 어

## 사분오열 구성원들 반발로

## 번번이 개혁 골든타임 놓쳐

## 조직 비대·재정악화 악순환

## 직원들 모럴헤저드도 만연

는 정도 효과를 나타낼지 의문이다.

◇구조에 그친 개혁=조선대는 17개 단과대학 85개 학과로 전국적으로도 학사·행정 부문에서 비대한 대학이다. 조직이 비대한데다 효율이 떨어지고 재정도 악화하는 고질적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게 교육계의 진단이다.

총장들이 취임할 때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려고 시도했으나 무위로 그쳤다.

강동완 총장은 지난해 3월 취임 초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대학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체 85개 학과를 60여개 수준으로 축소하는 학사 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구성원들의 반발에 막혔다. 전임 총장도 지난 2013년 비슷한 계획을 추

진했으나 실현하지 못했다.

조선대학교의 한 교직원들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기희생을 감수하지 않는 개혁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가 조선대"라고 토로했다.

◇조직비대·재정악화=현재 조선대에서는 교원 870여명과 직원 480여명의 인건비 1090여억원이 지출되고 있다. 등록금 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은 무려 70.57% 달하고, 1년 결산액 대비 인건비는 45.7%를 차지한다. 20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연봉 1억을 웃돌거나 육박한다. 전문가들은 대학 재정운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록금 수입이 급감하고 있음에도 이런 임금 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대학 법인 이사회는 지난 2015년 정원 10% 감축에 따라 지난해 재정적자 규모만도 무려 7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 교직원들은 "워낙 고연봉자들이 많기 때문에 재정압박 요인이 될 뿐 아니라 사실상 새 직원을 채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구성원 사분오열·모럴헤저드=조선대는 전국 대학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단체와 조직이 있다. 의결기구인 학교 법인을 비롯해 대학자치운영협의회(대자협) 소속 총동맹회, 총학생회,

## '조선대학교 2단계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준비와 구조개혁'

일시 : 2018. 7. 11. (수) 11:00

장소 : 조선대학교 본관 캠퍼스 디자인홀



11일 강동완 조선대 총장 등 교직원들이 정부의 2단계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를 앞두고 구조 개혁추진을 다짐하고 있다. 조선대는 최근 1단계 평가에서 우수대학에 들지 못해 이달 중 2단계 평가를 받게 된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직원노조, 교수평의회 등 4개 조직이 있다.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직원노조, 제2직원 노조, 비정규노조 조선대 지회, 민주노동조합, 민립민주조선대인 모임 등이 있다.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단체들이 많다고 흠뻑이 아니지만, 이들이 계보·계파를 형성해 총장 선거에 관여하거나 이익집단으로

변질돼 가고 있다는 목소리로 적잖다.

교직원들의 모럴헤저드와 근무기강 해이도 대학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교육부의 평가에서 사실상 위기대학으로 분류됐음에도 직원들이 일과 중 골프를 치다 다쳐 뒷발을 냈었다. 조선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는 거액의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쉬

쉬다 뒤늦게 형사 조치를 취했다.대학역량평가 업무를 맡고 있는 관련자가 보고서 제출시기에 여행성 출장을 다녀와 입찰에 오르기도 했다. 위기상황임에도 총무과 간부도 해외여행을 떠나려다 고위층의 요구로 학교에 복귀한 사례도 뒷발을 냈고 있다./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선진 방재 시스템도 어쩔수 없는 자연의 위력



김은영의 '그림 생각'

### (231) 일본 폭우

사흘 간 서낙 치비가 쏟아진 일본 전역 곳곳에서 그로 인한 피해 소식이 엄청나고 있다. 최근 태풍 뿌리베루이 우리나라를 빙거가 안심하는 사이에 태풍 후 밀려든 장마전선 영향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물난리를 겪는 일본발 뉴스를 접하면서 방재 시스템이 뚝거가려면 서러울 정도로 일본도 자연 재해 앞에서 속수무책인 것을 보니 남의 일 같지가 않다. 인간의 힘으로 못할 일 없을 것 같은 초저농사화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대자연의 위력 앞에서 인간은 여전히 미미하다는 자각을 하게 된다. 마치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쏟아진

폭우를 만났었던 것일까. 일본의 대표적인 우키요에(浮世繪) 판화가 우타가와 히로시게의 작품 '오하시야타케의 소나기' (1857년 작)는 굵은 비가 휘몰아치고 있는 다리를 뛰어가는 사람들의 급한 모습을 담은 작품이다. 하늘엔 비를 잔뜩 머금고 있는 먹구름이 드리워져있고 좀처럼 멈출 것 같지 않은 빗줄기가 화면에 가득해 그림을 감상하는 순간도 한없이 긴장되고 발걸음이 절로 동동거려진다.

우키요에는 주로 에도시대 서민들의 일상생활 풍속을 그린 그림이지만 히로시게는 풍경 판화에서 독자적인 화풍을 성취했던 작가이다. 히로시게는 예나 지금이나 여행을 좋아하는 일본인들에게 풍경판화를 통해 시각적인 자료를 제공해주면서 만족감을 주었다고 한다. 특히 그는 비, 안개, 눈, 달빛 등 기상 현상을 그림 속 소재로 삼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 덕분에 그의 판화에서 기후는 화면의 분위기를 이끄는 핵심적인 요소이기도 했다.

우키요에는 오랫동안 원근법과 입체감, 정확하고도 아름다운 형태에만 집중



우타가와 히로시게 작 '소나기'

했던 유럽미술, 그 중에서도 인상파 거장들에게 충격과 신선한 자극을 주었는데 특히 빈센트 반 고흐는 우키요에 판화를 4백 여 점이 넘게 수집했고 이를 따라 그리기도 했다. 히로시게의 작품 '소나기'를 같은 구도도 모사한 고흐의 '일본풍: 빗 속의 다리'를 보면 고흐가 얼마만큼 우키요에에 열광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광주비엔날레 정책기획실장·미술사박사>

## 바른미래 몫 국회부의장 주승용·정병국 의원 양자대결

### 내일 의원총회 경선 선출

바른미래당에 부여된 20대 국회 후반기 부의장 자리를 놓고 정병국 의원(5선)과 주승용 의원(4선)이 양자 대결을 펼친다.

11일 바른미래당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까지 부의장 후보 등록을 받은 결과 5선의 정병국 의원과 4선의 주승용 의원 단 2명만 신청했다. 지난 10일 마무리된 여야의 원 구성 합의에 따라 국회부의장 두 자리 가운데 한 자리는 제3당인 바른미래당이 맡는다. 주 의원은 이날 오전 후보 등록을 마친 반면, 정 의원은 고민을 거듭하다

후보 등록 마감 직전 출사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은 13일 오전 9시 의원총회에서 경선을 통해 부의장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일단 이번이 없다면 주승용 의원의 낙승이 예상된다.

바른미래당은 최근 한지봉 두가족 흐름이 강화되고 있어 경선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 간의 표 대결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 의원 30명 가운데 비례대표 의원을 제외하더라도 국민의당 출신 의원은 17명, 바른정당 출신 의원은 9명으로 국민의당 출신 의원 숫자가 압도적인 상황

이다. 주 의원이 당내 경선에서 승리, 국회부의장 후보가 된다면 오는 13일 오전 10시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최종 선출된다.

하반기 국회부의장에 주승용 의원이 선출된다면 광주·전남 정치사에도 한 획이 그려진다. 전반기 국회부의장을 박주선 의원이 맡았기 때문이다. 국가 의전서열 9위의 국회부의장 자리를 전·후반기 연속으로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맡는 것은 최적이다. 주승용 의원은 "겸허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이라며 "선출된다면 지역과 시대를 위해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

## 문대통령 인도 일정 마치고 싱가포르로 출발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3박4일 간의 인도 국민방문 일정을 마치고 팔람 공군공항에서 다음 순방지인 싱가포르로 출국했다.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 방문은 15년 만에 이뤄지는 한국 정상의 국민방문으로,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오는 13일까지 2박3일간 머물며 일정을 소화한다. 이날 저녁(현지시간) 싱가포르에 도착하는 문 대통령은 12일 오전 공식환영식을

시작으로 할리마 아잠 대통령을 면담하고 리센통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문 대통령은 작년 11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의 참석차 방문했던 필리핀에서 리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리 총리와 회담 후 양국 정부 당국 및 기관 MOU(양해각서) 서명식에 참석하고 공동언론발표도 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정부가 배양한 난

초에 외국 정상의 이름을 붙이는 '난초 명명식'에도 참석한다. 한국 대통령이 난초 명명식에 참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오후엔 한-싱가포르 비즈니스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국민만찬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순방 마지막 날인 13일 싱가포르 지도층과 여론주도층 인사 400여 명을 상대로 한 '싱가포르 랙트' 연설을 통해 한반도 및 아시아의 평화·번영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동포들을 격려하기 위한 오찬간담회를 끝으로 귀국길에 오른다. /연합뉴스

**2018년 무안공항 직항 출발**

이제 편리하게 가까운 무안공항에서 조이투어와 함께 하세요! 푸~우~욱~

# 일본 기타큐슈, 오사카, 러시아, 세부, 북해도, 다낭, 방콕, 대만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여행 길이 즐거운 동반자!!!

대표전화 : 062-234-3222  
FAX : 062-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80(금남로5가)

http://www.joytour.kr

일본여행 / 국내·제주여행 / 해외여행 전문여행사 조이투어

**가까운 무안에서 일본 기타큐슈 온천여행**

**5월 27일 이후**[화(4일), 금(3일), 일(3일)] 정기편 확정

오후 출발(화, 금, 일) 무안(18:00) - 기타큐슈(19:10) / 기타큐슈(19:40) - 무안(20:50)

- 정기편 확정 기간 한정 특가(6/5~7/20) -

- ◆ 기타큐슈 에어텔 3일 299,000원
- ◆ 기타큐슈, 삿부, 유후인 3일 [실속] 399,000원~ / [폭격] 499,000원~
- ◆ 기타큐슈, 삿부, 유후인 4일 [실속] 559,000원~ / [폭격] 599,000원~
- ◆ 기타큐슈 아마구치 3일 [폭격] 549,000원~ ※ 불포함사항: 무안공항 승수 및 기사/가이드 경비

**무안 ↔ 오사카 정기편** 제주항공으로 떠나는 나만의 자유여행

[월, 목(3박4일) / 수, 금(2박3일)] • **세미패키지 실속, 무안 출발/오전출발** •

- ◆ 오사카, 나라, 교토 실속(세미더블) 699,000원~
- ◆ 오사카, 와카야마, 교토, 나라 4일 949,000원~

**무안 ↔ 토토리(요나고) 직항 전세기**

**7월 27일** 부터(총5회)[금, 일(2박3일) / 화(3박4일)]

- ◆ 2박3일 699,000원(ALL 포함) ◆ 3박4일 799,000원(ALL 포함)
- ◆ 추석 연휴 스케줄(9/22, 23, 24, 25~) 2박3일 998,000원(ALL 포함)

휴일 연휴 가을, 연날 함께~ **무안 ↔ 마쓰모토(나가노 북알프스) 직항 전세기**

**오모마치 & 알펜루트 & 마쓰모토 관광**

**9월 23일** 부터(금, 일(2박3일) / 화(3박4일))

- ◆ 2박3일 1,048,000원~ ◆ 3박4일 1,198,000원~

**무안 ↔ 북해도 전세기 취항!! 7/18부터 ~ 8/21까지 총 19회**

**7월** 18, 21, 24, 25, 27, 28, 30, 31 **8월** 2, 3, 5, 6, 8, 9, 11, 12, 14, 17

[폭격] 준특급+특급 1,290,000원 [고폭격] 특급 1,450,000원  
[골프] 특급 1,790,000원 ※ 국경수기 요금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무안 ↔ 블라디/하바를 전세기 취항!! 7/11부터 ~ 8/16까지 총 10회**

[알뜰] 3성급 1,090,000원~ [실속] 5성급+3성급 1,190,000원~  
[폭격] 5성급 1,350,000원~

**무안 ↔ 세부 직항 전세기 [팬퍼시픽 연합]**

**6월 30일** 출발 부터(수(3박4일) / 토(4박5일))

- ◆ 세부 정통 패키지 (3박4일) 599,000원~ / (4박5일) 649,000원~

• 팬퍼시픽항공 왕복항공권 - 음료 서비스 / 기내 담요 서비스 • 일급 / 준특급 / 특급 리프트 3박(2인실 기준), 1억원 여행저보증  
• 특식 2회, 리프트식 3회, 코코넛 오일(오리 드라이프) & 코코넛 비누 / SET(포함) • 필리핀 현지 공항세(7000페소/1인당) 포함  
• 호텔(다이빙 무료강습, 라우리부 디스카버리투어, 민속공연 관람, 마사지)  
• 시내관광(아벨란의 십자가, 산페드로요새 또는 마탄성당, 마탄수라인 등)  
• \$80 상당의 아일랜드 호텔투어(세부도 중심) 포함 ※ 출발 날짜별로 요금 및 포함사항과 불포함사항이 다르니 문의 바랍니다.

**무안 ↔ 대만 정기편(제주항공) 7월 27일** 부터(일, 월 출발)

- ◆ 대만, 화롄, 지우펀, 야류, 서문정 3박4일 799,000원~
- ◆ 대만, 서문정, 지우펀, 야류 2박3일 629,000원~

**광주 → 제주도** ◆ 2박3일(주중) 249,000원~, 2박3일(주말) 324,000원~

**무안 ↔ 다낭 직항 전세기**

**5월 18일(금) 이후** [화(3박4일), 금(3박5일)] 푸우욱~

화 출발 무안(08:05) → 다낭(10:40) / 다낭(14:40) → 무안(20:30)  
금 출발 무안(21:35) → 다낭(00:10) / 다낭(01:05) → 무안(06:55)

**VN 베트남 국영항공(스카이팀) 차별화된 기내 서비스**  
A-321-200(비즈니스 13석, 이코노미 161석)  
기내식, 음료, 맥주, 기내담요, 배개, 비디오 상영

[골 드] 다낭 · 후에 · 호이안 4일 599,000원~  
[골 드] 다낭 · 후에 · 호이안 5일 769,000원~  
[프리미엄] 다낭 · 후에 · 호이안 4일 799,000원~  
[프리미엄] 다낭 · 후에 · 호이안 5일 969,000원~

**무안 ↔ 방콕 · 파타야 정기편(제주항공)**

**5월 2일** 부터(수, 목(3박5일) / 토, 일(4박6일))

- ◆ [준특급] 649,000원~ ◆ [특급] 699,000원~

남만이 넘치는 **지중해 크루즈 10일**  
**(이탈리아, 베니스, 크로아티아, 그리스)**  
◆ 광주 출/도착, ALL포함 4,600,000원

※모든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 포함사항이 다르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양국정부인허가조건 ※ 운항스케줄이 항공사 및 천재지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발 날짜와 인원 수에 따라 상품 가격이 다르니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제등다2003-1호

◆ 공휴조건: 여행기간 1인 기준, 여행지별 기일(여행일)은 1억원, 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회기금, 관광 및 무역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 / 전 지역 ◆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약관 기일 엄격 ◆ 예약시 계약서(주소, 규정) 및 일정을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경비업(단체, 기사/가이드 명세서, 선박명, 각종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상품에 따라 다름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